

학생회보

제 8 호

위성원주 한국학생회 발행

1973. 11월

BOX 123 #300 HUB U.W.



<李仲彦 작품집에서>

이날의

혹검

10月初에 美2으로 건너온 어떤 학생으로 부터 비행기 속에서 우연히 서울 大學生들의 데모를 다룬 日本 新聞을 보고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너무 지나치게 과장 보도

를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전혀 국내 新聞에 보도 되지도 않았던 것을 외국 新聞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을때 무언가 분노 비슷한, 혹은 시름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말도 들었다. 그후 늦게나마 우리나라 新聞의 한 귀퉁이에서 學生 데모는 그대로 매몰되는 듯 싶더니 13 文敎長官의 聲明을 통해서 <극소수의 불순 학생> 들에 의한 <反政府的 일뿐 아니라 反國家的> 이라고 判定되면서 우리는 그 底流에 흐르는 무언가의 깊이와 폭을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政府가 애써 과소평가, 내지는 잊어주기를 勸誘(?) 하는 학생 데모를 새삼스레 들고 나와 왈가왈부 하자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現政權에 反對하는 행위는 反國家的일수 있다는 무서운 論理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묻고 싶을 뿐이다.

오늘이 <짐이 곧 國家> 라고 공언한 루이 14世 治下의 17 世紀 亂世였다면 反政府的인, 아니 反 루이的인 行爲면 곧 反國家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20 世紀의 13 開明한 民主主義國家(?)에서 그런 망령에 홀려있는 사람이 있을 리도 없을 터인데 웬지 한국 政府는 곧잘 言語學的인 混濁을 일으키는 듯 反政府的인 行爲는 反國家的인 것이라는 暗示 내지는 경고(?) 를 하기를 좋아 하는 듯 싶다.

우리가 알기로는 國家는 政權 혹은 政府라는 엄격히 區別된 別世의 것일 뿐이 아니라, 때로는 國家를 위해서는 反政府的인 行爲도 正當했었다는 史例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또 배워왔기 때문에 反政府 = 反國家라는 單純論理의 착오를 지적해 둘 必要가 있을 듯 싶다.

추수 감사절 음악제

학생회 주최 추수 감사절 음악제가 오는 11월 8일(수요일), U.W. 음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 회원들의 발표의 기회가 되며, 비선공 회원들의 음악감상의 기회가 될 이 음악제에 많은 학생회원과 교도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이 음악제에는 국악부에 이병관 형외의 몇분, 그리고 양악부에 이청형 형외의 몇분이 출연할 예정이다.

한인회 총회성료

지난 10월 총회에서 구범희(회장), 이선복(부회장)씨가 새로 선출되었다.

— . — . — 이소식

○ 새학기를 맞아, 새 전화 번호:

이명호 형 522-8672
 이영권 형 523-7662
 방형찬 형 543-0916
 왕하권 형 543-7558
 김종기 형 633-3782
 이정복 형 525-3604
 이청형 형 523-6004
 조미경 형 543-3826
 이병인 형 543-5569
 최재권 학생 회장:

543-3964
 (HANSEE, L 318호)

직장에 관한 정보

워싱턴 주 정부나 각종 교육기관의 직장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으 하시는 분은 U.W. 화학 연구실 (Begley Hall, 402호실) 의 정경훈 박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학생의 날 행사

U.W. 국제 학생회에서는 12월 1일(토), HUB 광장에서 국제 학생의 날 행사를 거행 예정인바, 학생회에 참가 요청은 해온 바 있다. 참가 방법과 내용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는 분은 회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권소식

○ 새학기에 새 회원:

태석권 형 633-3464
 전명선 형 522-7942
 (성남우 형)
 최진호 형 524-6233

문수열 형 김종기 형 창조
 권이조 형 543-7400

○ 새학기에, 새 신랑, 새 생식.

윤희정 형, 서울에서 결혼한 모습
 부인이 보시면 정식으로 신고
 하시겠다고 ----

김종기 형, 문수열 형과 새학기 시작
 전날에.

박혜승 형, 지난 8월에, 증 화혼.



오 세 희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과정은 마가 하였던 원시인들의 사회에서도 꼭 성공적이 영위되어 왔다. 더욱이 교육에 필요한 여러 조건, 즉 자료와 설비가 불비하고 부족하였던 당시에도 그들의 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 계승한 것을 보면 그렇시 이 비 그들도 상당한 학습의 기술을 가졌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각국에서 이 가르치고 배우는 문제를 Technology 라는 기술의 근본 원리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와 이론을 특수한 성취를 가진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적용하여 어떤 해결점을 찾아볼까 한다.

한국의 교육을 두고 말할때에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즉 "제한된 재정적 부족내에서 그 많은 학생들을 한 교실에 넣고서 어떻게 효과적인 학습을 시킬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은 한국 교육문제의 본질을 딱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는 세분된 문제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한계선에 달한 교육비 투입의 부족에서 오는 자원 부족, 둘째는 많은 교육 인력이 그들을 수용할 설비의 부족, 즉 교실 당 초과 학생의 문제, 셋째는 효과적인 학습의 문제인 것이다.

첫째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을 전망할때에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둘째의 문제도 단순히 내의 해결은 불가능 할 것 같고, 당분간은 현실을 수긍하면서 학생들을 여러편으로 구성하여 교수방법과 교재의 내용이 관련시켜 고대 고대 이 모든 것은 도와 부에 없는 것 같다. 셋째의 문제도 학습의 있어서 불가변한 학습자로 설비, 자원의 희박을 인정하면서도 설정된 학습 목적을 달 할 수 있도록 자료의 선정, 제작, 분배, 사용을 효과적으로 조절,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 해야 하지 않나 된다.

이와같은 문제, 즉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운영하는 면에서 학습의 효과를 얻어 보려는 노력과 연구는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공통되는 문제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빈곤한 나라에서는 그 운영의 모든 것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학적 이론이 한국에 이와같은 교육 문제를 두고서 어떤 해결의 시사점을 줄수 있는지, 그 이론의 근본을 간단히 들어 본다. 교육에 대한 공학적 접근이라면 시청각등 많은 기계를 사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올리는 것으로 자기 자애 관심을 더 보이는듯 느껴져 있으나 그 관 의는 기계에 보다 그러한 기계들을 교육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유용 적절히 사용할수 가 하는 활용의 개념에 그 근본을 둔다. 요즘이랑 많은 영국의 Technology 의 번역이며 고대 희랍의 Technologia 에 소용 되게 되는데 그 원 뜻은 "체계적인 혹은

조직적인 취급 (Systematic Treatment) 이란 뜻이다. 더 상세히 풀이 한다면 "어떠한 조직적인 지식 (즉 과학적 지식) 을 실제의 문제와 목적에 체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되겠다. 따라서 Technology 혹은 Technological Approach 라고 할 때는 과학의 제 분야 및 거기에서 나온 지식과 이론을 상호연결시켜 가장 효과적인 구성을 이루어 보겠다는 보다 넓은 접근법을 보이며 체계적인 방법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공학적 접근법이 교육에 도입 되었을 때 그것은 학습의 문제를 해결함에 새로운 태도를 보여 준다. 교육공학 (Educational Technology) 의 이해는 학습의 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르치고 배우는 데 관련되는 모든 요인 (人의 및 物의) 을 분석 혹은 합성을 지적하고 이 모든 요인을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학습이론 (Learning Theory) 과 의사소통이론 (Communication Theory) 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조직, 제작, 연결, 활용하고 운영 할 것을 지적한다. 만일 이 제 요인들을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 통하여 조직적으로 연결시키고 활용한다면 못 가르치는 개념이나 못 가르치는 학생이 있을 수 없다고 자외 할 것이다. 교육공학은 학습상의 여러 요인들을 하나하나의 양과 질도 증시하지만 이들 요인들을 어떻게 조직하는가에 학습의 성과가 크게 달려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충분한 제 요인들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를 같은 입장이

대하여서도, 거기에서 어떤 문제, 즉 비록 빈약한 양과 질의 요인이나 그것들을 좀 더 효과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학습의 과정 중에 조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안목을 준다. 초과의 과실상 학습수 때문에 도저히 정상 학습을 할 수 없다던 실망한 교사는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태도에 교육공학은 동시라 않는다. 학습을 재조직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서는 교사의 내면을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할 것이고, 이에 관련하여 현재 있는 교사들을 재구성한다든지, 또 재한된 교사이거나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 모색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기존의 구입은 많은 재정을 요하나 최소한의 원만한 구입량을 교육공학 방법으로 제시하여 줄 수 있다. 여러 요인은 재확인, 재통합하여 학습이론을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보려는 태도를 재확인 재확인 자립의 범위 안에서 학습을 향상 시키는 방법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교육공학 이론이 우리의 어려운 심정의 도움을 줄 것이다.

나는 이 교육공학의 이론이 한국 교육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이라고 낙관하는 데는 않는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교육공학이 제시하는 여러 과제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면서, 한국의 교사들을 이해 준비시켜 교육시킬 때면 어려운 재원의 부족과 초과의 학습수의 다루기 힘든 조건에 부딪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여러 문제가 말 못하고 머물러만 있기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낙관은 가져볼 수 없다. (교육학)



— 낚시꾼과 낚시인 —

- 유대식 -

그날도 동태를 잡으려고 미끼를 사러갔다가 새로운 발견을 하였다. 움직인 새뭉이 것도 세미리나 냉잠리가 종다르 의젓하게 어음키에 두워있지 않으니. 큰놈은 28.9 파운드. '고작해야 29 파운드 밖에 잡히는 동태에 비하면 이건 Ahdb 선장이 갖어놓은 싸우니 목숨을 잃은 Moby-Dick 못지 않은 크기다. 겁스레한 응에서 침묵한 윤기가 흐르고 빛을 갖다낸 은빛복부에는 통증이 삼기 아니까신듯, 주둥이 언저리의 상처는 분노에 찬 치열한 투쟁의 외세게 재주좋은 승리의 희열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었다. 바로 앞바다에서 30분을 싸우 끝에 올렸던 한다. 29 파운드 자리 킹새뭉!' 이젠 노승꾼이 쫓아다니고 앉아서 쫓아본 광명, 사냥꾼이 활약하며 추적하는 노루에 못지않는 낚시인의 꿈이다. 배만타고 나가면 한두마리는 문제없다고 분명히 그랬겠다.

먹물을 뜬어놓은듯한 검은바다에 반사되어 반무라 있는 새아들 야경에 낚시를 던져놓은 다리끝에 앉았으니 잡으려던 동태는 관심밖으로 사라졌다. 물에 뜬 조각칼을 내려다 보면서 "그 큰놈들이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 생각하니 Westport에서 잡은 새뭉이 옛날같이 그리워진다. "10 파운드 짜리를 올릴 때에는 어깨가 버근 했는데..." 라고 있는데 바로 다리 앞에서 청명하리 무슨 통나무 떨어지는 소리가 나며 물이 솟아 올랐다. 무심히 누가 무얼 던졌나 하리 쳐다보고 있는데 시커먼 새뭉이 세번 네번 튀어 올랐던 떨어지는 것이었다. 삼시간에 낚시장 안의 29 파운드 짜리 머릿줄에서 샅이나 40, 50 파운드로 자리 몸상의 심해에서 대어와 투쟁을 벌리려는 초라인데 다리위에 놓은 낚시대가 한두번 고개를 꺼덕인다. 물러보니 상어다. 흔들거대는 등기시에 찢려 손에서 튀기 나다. 약자를 닦치는대로 잡아 먹으며 수많은 고어의 생존권을 위협하던 행패를 휴지에 와서 까지... 바다의 폭군! "네놈도 맛 좀 봐라." 수건으로 꼬리를 감아쥐고 다리에다 동태이를 치른 대가리를 뺏고서서 칼로 주둥이를 찌르 낚시를 뿜어 냈다. 바르르 떨어진 꼬리가 경련을 멈췄다. 다 허무러진 다리끝에 앉은 상어를 참아들이고 폭군 할 것이 아니라 배를타고 큰 새뭉을 잡으러 가리.

세사람의 "꾼"들을 모으려는 것은 너무도 간단했다. 고만할 뿐인데 집에서 쉬려는 권리(?)에 "2월 15일 서우한 말 잇생에 처음 들었었다"는 S씨, 후시 때놈으면 의리 운운하며 나선 K씨, "낚시는 후심은 먹되 낚시엔 하지 말아야 섬사가 된다"

는 < 씨... 수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구구한
학설과 이론을 검토한 끝에 금요일 밤에 배를 타고 찾아
작업을 하면 수확이 제일 크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밤 아홉시에 배를 타고 나가 Duwamish 하구로
들어서 trolling을 시작하고 낚시줄은 스모자
내외로 내리는데 배속이 45도 각도로 끌어야 된단
느낌 많이 받았다. 배는 서서히 강물을 가를러 올라
가고 있을 때다. 강짜기 고목이 터질듯한 고동소리에
놀라 앞을 보며 북이 4:50자 전방에 산짐이 같은
꽃배가 들어와서 치고 있었다. 우리와 충돌을 위해
급히 방향을 바꾸려고 2야말로 "45도" 각도로
선체를 쓰러뜨리며 창자를 휘젓는듯한 움직임을
계속시켜댄다. 충돌은 불가피한 사실 같다. 산산
조각이 되어 잠드러온 새문의 뱀이 될 생각을 하니
기가 차다. 물속으로 뛰어든다가 다시 한번 귀경
하는 6마리짜리 모래의 전속력을 내어 오른쪽
강가로 토졌다. 한 스모자 간격을 두고 지나가던
선원들이 내려다보며 소리소리 고함을 지른다. 추운
러인 환장을 했느냐는 말이겠지. "You're
welcome."의 면발로 응해주었다.

네사람은 "꾼"들은 배란지 한시간도 채 못되어
이미 사선(?)을 넘은 낚시인으로 승격이 되었다.
Duwamish 하구와 Alki 앞바다를 창경원의
낚업구듯이 샅샅히 훑으며 trolling,

mooching, 잇는재주 기교를 다 써보았으나 동양
허사였다. 응망남제 부락하느라고 잠박잠박 기도
드리것 외에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고 아침 일시에
해장국을 끓여놓은 기리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낚시꾼의 세계에는 이렇듯 기찬 허랑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믿어지지 않는 영웅담이나 기담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Puget Sound" 근처에서
새문이 배안으로 뛰어들어 낚시하던 노인이 기적할법
했다." 이걸 NBC Sports News에서 목격
자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보도된 사실이다. "우리
hus는 재작년 여름에 리서쓰를 찢어 미끼삼아서
드라우트 50마리를 잡았다." 세시간동안 한마리도
몰리지 못한 어떤어지가 옆에 잡이놓은 곡릭한
피치 여섯마리를 못마땅하라는 듯이 들어다 보면
서 들어놓은 사면이다. 하도 못밖의 맛이 많은
것이 낚시인 지라 믿어주지 않을수 없다.

낚시를 다니는 이유도 그렇다. 줄을 당기는 물
고기와 싸우는 동안 orgasmic ecstasy를 느끼
는 이도있다고 들었다. 하기야 대어를 몰리면서
그 재미까지 본다면 양수점장으로 더비랄 나위가 없을
병도라나, 아직 도통(?)을 못해서 인지 약간 지친
욕심만이만 들린다.

낚시질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것 같다. 문명이
인류복지를 위해 자연을 극복하려는 잠깐적인

집단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본다면 바다속을 훑으며 물기를 꼬여올리는 낚시 바늘은 문명을 상징하는 흥기라고 볼수있겠다. 대량어업이 어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음은 수조관이 전 인류의 존속을 잇는 현실의 때를 간어하고 있다.

발전 및 번도의 빛을 쫓아온 문명이 리어 무엇을 위한 발전을 했는지? 생선을 먹고 수은중독에 걸려 비틀어지는 낚시인들의 팔다리 (동경), 오염된 공기 때문에 호흡기관으로 죽어간 사람들 (유유), 하루아침에 자루를 하나씩 큰 무덤으로 만들수 있다는 (리장이길 바라지만) 마,소의 핵무기... 인류를 맞닥뜨릴수있는 흥기를 만들어 놓는 자멸이 수면위 공존의 길을 찾는 인간들, 그들의 이념대결 틈에서 동족살생의 바늘끝에 부러진 단일 민족 국가들 ...

제도, 전통, 풍습의 등바구니에 끼어 다량취해 바퀴 돌듯하는 일리에서 씩이느니 못분이오느니 화질잡이다. 그래서 낚시러로 간다. 거기서 범이 허용하는 레두리 안에서 진정한 살생을 통해 심리적인 판장을 하고 돌아온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현실도외기 낚시의 전부는 아니다.

위니위니 해도 낚시의 매력은 바리의 매력에서 오는것같다. 변화무쌍한것이 인생이라면 바다또한 잠시도 쉴새없이 변화하고 있다.

내일 무슨일이 일어났지 모르니 속듯이 바다에서 어떤데가 잡힐지 알잡힐지 알수없는 것이다. 2속에서는 죽을때를 알리서 제 출생지를 찾아가는 영물도 속고있다. 평화 자유 기쁨 부조리 약육강식의 인생을 조수와함께 흐르는 시간을 지켜보면서 강렬하게 체험할수있는곳이 바다다. 그래서 고기야 잡히건 안잡히건 낚시를 한번 잡라도면 생을 한번더 살고 온것이란 말이 나온다. (영문학)

(P.S. 우리가 허랑치고 돌아온날 자정 임박해서 리상한 고향소리에 즉시 잡이라도 전분이 계시면 용서 하십시오. 그건 새문(?) 한동 걸었다 들렸을때 지른 소리였읍니다. 내년 팔월에는 기묘 그동을 잡으다가 초래 올리지요.)

원고 모집

- △ 마감 : 매달 25 일
- △ 종류 : 隨筆, 論壇, 旅行記, 讀書所感, 광고사항 등등
- △ 우송주소 : Korean Student Assc. Box 123 #300 HUB, U.W.
- △ 연락 : 543-3964
632-3567
633-5236

* 관인여러분의 투고도 환영합니다.

한국학과 소개

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University of Washington students from Korea and members of the Korean community may not realize it but this campus holds one of the most active academic programs related to Korea in the United States. I am glad to take the opportunity offered me by the editors of this newsletter to let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know that the programs in Korean studies here are ready to render service not only to students enrolled in these programs but also to those who may be students in other programs on campus and to those who may wish to take advantage of the cultural opportunities offered by Korea-related course on campus.

There are two distinct, though related, academic programs leading to undergraduate and graduate degrees related to Korea: the program in Korean regional studies located in the Institute for Comparative and Foreign Area Studies, and the program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located in the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 The courses offered cover quite a wide range in language, literature and history, and go from elementary to advanced. Work in the advanced courses can be arranged quite flexibly to accommodate individual students, either in seminars or in small classes. Besides the courses in these programs, there are many other courses which relate directly to Korea, in other departments, notably the Department of Comparative Literature and the School of Music. At present, the faculty in charge of the Korean programs numbers three professors, one each in language, literature and history, and one student teaching assistant, and it is anticipated that a fourth professor, in one of the social sciences, may be added before very long.

In the past two years or so we have found an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with Korean backgrounds becoming interested in one or another aspect of Korean studies. These are students who have been born in the United States or who came here at an early age and enroll in courses relating to Korea, especially the language and literature courses relating to Korea, especially the language and literature courses, either to regain something precious that they have forgotten or else to build further upon a foundation of Korean learning that they still possess. I would like to bring to the attention of other such American-born or American-raised Korean students, too, that this campus offers unique opportunities for enriching their general educational background as well as for possible majors. The same goes for American wives or husbands of Korean Students and residents in the Seattle area who may wish to acquire some familiarity with the cultural traditions of their spouses. I extend a cordial invitation to all those who may like to find out more about Korea-related courses to consult with me or with Professors Doo Soo Suh, James B. Palais, or Mr. Chung-Min Choi, all with offices in Thomson Hall.

Fred Lukoff, Associate Professor
Asian Language and Literature

전공순례 ⑦



민족음악학 (Ethnomusicology)

이병원

민족음악학이라고 하면 우선 어떤 민족과 그 민족의 전통과 관계있는 음악을 연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생각하게 되나, 좀더 구체적으로 그 정의를 내려 보려면 막연히 지는 수가 있다. 시인, 음악가들, 특히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민족음악학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을 가끔 발견하게 된다.

현재 어느정도 큰 비판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민족음악학의 의미는 근사적으로 해서 "study of music in its cultural context"이다. 이렇게 되면 민족음악학의 범위는 Western Art Music까지도 포함하게 되나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European Art Music은 제외시킨다. 왜냐하면 European Art Music의 역사적인 진화과정을 관찰해 보면 그 유행들은 발생과정에서 그 주어진 사회의 전통적 음악배경에서, 절대적으로 야

지만, 관련없이 거의 독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음악 (polyphony), 바로크 시대의 대위법적음악 (counterpoint), 클래식 시대의 Sonata form, 낭만적 시대의 motivic transformation 은 그 사회변천의 영향을 잊을 망정, 그 발생시대의 민족음악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며, 그 시대의 작곡가들이 각 시대와 시대의 전환기에서 과도기적 작곡가들이 다른 보수적인 작곡가들에게서 볼 때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더 잘 안수 있을 것이다. European Art Music 중에서도 어떤 민족의 전통음악을 소재로 다룬 것은 민족음악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족음악학의 범사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Pythagoras의 Greek 음악에 관한 연구, Farabi의 아랍음악, 북반구의 한국음악 등등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그리되면 그 범사는 수천 년까지 소급하게 된다. 좁은 의미

에서는 주로 서양학자들에 의해서
19세기 말부터 일어난 시작하는 민족
음악의 연구활동을 말하는데, 이후라
의 경우를 민족음악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9세기 말부터의 민족음악학은
주로 서양의 학자들이 되지만
국가들의 전통음악을 연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음악 전문이 아닌, 선
사, 위교관, 여행자, 혹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 그때에는 모든 non-western

Art music이 "primitive," 혹은
"exotic" 음악이라고 불려졌는데,
그 이유는 Western Art music의
비해가 높은 서양학자들이 이 음악을
기준으로 다른 음악을 연구하는 Ethno-
centrism 때문에 primitive나,
exotic이니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다.

사실 비교해 보면, 아프리카
shona 민족음악의 화성이 gamelan
의 그것보다 더 원시적이라고 할 수
없고, West Africa의 Rhythm이
Stravinsky의 Symphony of

Pastor보다 더 원시적이나 할 수
없고, 한국의 가요를 산골가요라고
민족음악학자들에게 왓다 하다고
할 수가 없다. 어느 민족의 전통음악이
Western Art music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준 때는 허다하나, 그 반대로
Western Art music이 어느 전통적
인 민족 음악에 큰 영향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다. 반면에
"primitive"나 exotic이니 하는
단어들은 민족음악학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민족음악학의 연구는 처음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학자들에 의해
그들의 식민지 국가의 음악을 주제로
연구 활동해 왔으나 주로 Archival
있는 형태이다. 1940년 이후로는
미국이 더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는데,
Europe의 학자들과 공불경으로 연구
방법에서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직접 field work에 나가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민족음악학에서는 Western Art music
은 물론 그 외 다른 분야도 눈을 돌려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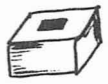


작년 8월 유학을 목적으로 혼자만 미국에 가보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멀지 않은 장래 즉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극히 회의적인 태도를 표했었다. 고가 떠나보낼 공항에서 나는 물론 체면상 102 정도의 눈물을 흘리는 했으나 내심 적어도 앞으로 1년이상은 자유스러울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간의 희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올수 있었다. 그러나 항상 보든일이 그리하듯이 대부분의 기대는 기대만으로 끝나는 법이어서 그후 시작된 그의 편지타령은 나를 점점 파곤하게 만들어서 나는 졸업논문 쓸 걱정보다도 편지 작문 걱정을 더해야만 하는 형편에 이르렀고 때때로 그 당시 그의 편지마라 써있는 Weekend마다 체육관에서 역기를 들고 있으니 내가 미국에 오면 Airport로부터 우리의 Apart까지 나의 발에 흙을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의 약속은 지난 8월 우리가 헤어진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도 굶이 내가 미국에 오게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후 미국에 온후 처음 받은 한국의 친구로부터 편지 —

... 청취장과 편지 반가웠다. 그동안 니편지 기다리느라고 목이 길어졌다. 캐나다로 신혼여행이라니 내뭉까지 실컷보고 재미있는 얘기 많이 많이 들려주련. 가장궁극한건 딸이다. 길서방이 Airport에서 너를 안아 보셨는지 알고싶단 딸이다" ... (이하 생략)

그리고 이제 우리가 땅콩 한알이라도 나누어 먹어야 하는 사이가 된지 벌써 한달이 넘어가는 오늘저녁 다음주의 mid-term을 B를 받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나의 남편이나 C를 받기 위하여 남편의 노력에 상당하는 노력을 하고있는 나 자신이나 마음이 가만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만큼의 사랑을 바칠수 없음을 지금은 어쩔수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전망도 과히 밝지 않으니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대학정도 나오면 다행인 머리를 가지고 이제같이 미국 정부가 권위를 책임질 M.A와 Ph.D를 받아 보겠다는 우리부부의 무모함에 문제점이 내재하고있다. 그러나 누가 아는가? 독해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우리의 커다란 문제점도 4.5년 들이 붙들고 있으면 풀리게 될지도 ...

(길 종기형의 부인)



신입생 '코너'

- 미국에 온 느낌 -

전병선

나는 9월 12일 서울을 출발한 이래 아직 채 두달도 지나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내 머리 속에서는 난자를 생활수가 없다. 아마 전혀 다른 생활습관이 시작되었으니 역시 다른 달력으로 세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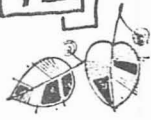
전부터 유학생활이란 외롭고, 공부때나가기가 어렵고, 말을 몰라서 괴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어도 소위 문화의 차이로 생긴다는 긴장감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금은 그래도 나아진 셈이지만 왜 그렇게 긴장이 되는지 처음에는 체정도 좋고 친절한 미국사람들이 보기도 싫었다. 또 못 알아듣어도 좋대 하면서 잘 듣으려고 노력 하지도 않았는데도, 수업시간이 지나거나 미국사람과 맞닥뜨리면 무척 피곤하였다. 이러한 핑계로 유학 온 것만을 잠으로 보내 버렸다. 길은 길어가고 나는

없어지고 바치 그림엽서가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 같아서 기분 이 이상해 지고 길도 자주 많이 버렸다. 그런데 요새는 사람이나 경치를 보고 싶으면 보고 싶으면 안 볼 수도 있게 되거나, 아마 나도 외국 생활에 적응이 되거나 보다. 그러나 보니 미국이 한국과 다른 점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실제로는 몰라도 미국사람들은 결론으로는 악은 서서 무엇을 하거나 무리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버스표를 살 때 면 차례만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멀찌감치 떨어져 서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는 관심도 없이 보아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일에는 적재하다. 단 길은길을 걸고 하지 않지만 눈이 마주치면 웃고 인사성이 바르고 ' ', 몇 년 후엔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많이 배워야 하겠고, 그 다음은 되도록 미국 사람이 되어, 나 자신을 이방인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러시아 어문학과)

투고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박시정

한국에서 일본에 처음 갔을 때다. 일본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 들었으므로 나는 심한 곤란을 겪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한 인간에게 모국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와 모국어의 힘을 크게 깨달았다.

비젓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고(思考)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표현해 내지 못하는 실음은 기막힌 것이었다.

더구나 일본인과 같은 용모를 가졌으므로 해서 외국인 대접 받기는 힘든 일이었다고, 그런 이유로 해서 빛어지는 기분상하는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서가(書架)에 꽂힌 한국책을 보노라면 나도 저만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나는 심한 고향병이 걸리기 시작했다. 낮잠을 자다가 애들이 한국말로 재잘거리는 소리를 잠결에 듣고서 여러번 뛰어나가기도 했었다. 그때마다 그것은 환청(幻聽)이었다.

한시간 반이나 걸려 기차를 타고 병어릿으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서성거리기도 했었다. 한국말을 하는 한국사람을 보기 위해서였다. 사개월째에 나는 더는 힘을

수가 없어서 한국을 다녀오기로 결심했다. 비단 언어문제 한 가지 때문이끼 아니라 고향에 있는 모국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왜 저렇게 독이 있는 눈물인가 자주하던 사람들도 다만 그들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방문은 내게 아주 슬픈 결론을 안겨 주었다. 이후로 언제나 나는 생각한다. 그때 가지 말았더라면 하고.

나를 떠나 보내며 눈물짓던 부모님과 그리고 낯익은 사람들과 거리들과 내가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생각하며 그리워하던 고향은 이미 나를 그 밖으로 밀어낸 후였던 것이다.

내 방문은 이미 내가 주인이 아니었고 한치도 부모님 곁에서 떠날 수 없었던 나는 이미 떠난 사람이었으며, 서러운 일 분동거지는 일들을 마음놓고 털어놓던 가까운 친구에게도 나는 이미 가까운 친구가 아니었던 것이다.

거리를 걸으며 나는 일본에서 보다 더 어색하고 동떨어져 있었고 외로웠다. —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 나는 그때 전봇대에 기대서서 '도마스 울프'의 이 소설 제목을 생각해냈다. 이러한 결론은 나의 심한 고향병을 낫게 해주었다. 세로 고향생각으로 가슴아플 여가 있지만 그때마다 이 결론을 되새긴다. 나는 이미 한국말을 듣고 싶어서, 한국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한국글을 읽고 싶어서

전전(轉轉)하는 여전의 씨가 아닌 것
 이다. 나는 이미 ex-patriot로서 살다
 가는 법을 익힌 것이다. 살아 고국(孤國)이
 가 된 것은 아닌가 서글퍼진다. 모국을

스스로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모국을
 단순히 사랑하고 인정할수만은 없게된
 새로운 관점에서야 방향일 것도
 같다. (작자)

◀ (편) ▶ (집) ▶ (후) ▶ (기) ▶

▲ 그동안 보다 유익한 기획물과 풍부한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문을 구한 결과, 우선 이달부터 <추천> <후고>란을
 신설, 선을 보이게 됐다. <추천>에서는 우리의 충심을 끄는 한국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우리의 동향적인 의견을 부각시켜 보려
 하며, <후고>란은 특히 廣場으로서의 순報 성격을 한걸음 넓혀
 학생이 아닌 한의 여자들의 의견도 실는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많은
 참여와 함께 버려가지 마땅,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을 기대한다.

▲ 이달 편집은 김재호 형의 두터우신 배려로 진눈개비 몰아치는 굵은날
 '폐지카' 열이 분위기속에서 끝낼수 있었다. 평생구독권(!)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稿를 보내주신 여러분, 특히 곱한 부락을 받아주신
 오지희 씨, 정신없는 첫학기 경향중에 저어있는 글을 써주신 전영선, 문수연씨가
 아니었으면 회보는 더 늦어질번 했다. 회보를 위해서 박기홍, 김홍기, 오근호,
 서진영, 이정복, 김철준, 김동기 제형과 유대건, 이익환, 우영덕 형
 부부께서 한밤을 함께 하셨음을 밝힌다.

▲ U.W. 학생회 보조금이 끊어지는 관계로 회보재정 연중이 앞으로의 과제가
 되어 있는 차에 최근 김혜성 목사(50분)와 김강장 씨(10분)가 교우
 협조를 해오신 것은 특이한 사항.

▲苦心공이 학생회비 납부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 지난 달에 봉투를 첨부했었던
 바, 8月末까지 보내오신 분은 김동호 씨 한분 — 아직까지 잊으시고 안내신 분은
 이달말까지 납부해 주셨으면 부락드립니다.

Korean Student Association
c/o FOREIGN STUDENT OFFICE, I.W.U.
SEATTLE, WA. 98195

Third class



SEATTLE, WA

CA LE. WA (J)

Dr. & Mrs. Hahn Mansop
4232 N. 8. 17th St.
Renton, Wa, 98055